

## 가족과 함께 즐기는 ‘5월 환상 무대’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오페라단이 5월을 보내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시립합창단은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합창뮤지컬 ‘피터팬과 후크선장’을, 광주시립오페라단은 30일 오후 2시와 31일 오후 2시·5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가족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의 ‘피터팬과 후크선장’은 명작 동화 ‘피터팬’을 생동감 있게 각색해 합창과 연기, 안무를 더한 종합예술무대다. 지난 4월 합창단 기획연주회 I ‘칭구야·노을·자’를 3일간 전석 매진시키며 어린이 공연의 높은 완성도와 눈높이 맞춤형 연출력을 입증한 광주시립합창단이 야심 차게 준비한 무대다.

공연은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 피터팬과 그를 쫓는 악당 후크선장의 흥미진진한 모험과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웬디와 동생들이 피터팬을 따라 신비로운 네버랜드로 떠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도 잊고 지낸 동심과 꿈을 되새기게 한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36개월 이상 미취학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섬세한 장면 구성과 쉽고 아름다운 음악적 표현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비롯해 톱커벨 역을 맡은 아역의 사랑스러운 매력, 한국도로교통공사 tbn 어린이 합창단의 청아한 음색, 클래식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보여줄 이삼열 밴드의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될 전망이다.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뮤지컬 형식의 합창극을 통해 어린이들은 상상력과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임창은

시립합창단 ‘피터팬과 후크선장’  
23~2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30~3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감성을 풍부히 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따뜻한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약 80분간 진행되며,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8회 정기공연인 ‘사랑

의 묘약’은 오페라의 묘미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콘서트 버전으로 제작됐다. 원작을 충실히 축약한 80분간의 공연은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구성되며, 극의 흐름을 돕는 해설이 함께해 오페라 입문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공연에는 이탈리아어 원어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한글 자막이 함께 제공되며, 재치 있는 유머 코드가 곳곳에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유쾌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오페라 입문형 무대’로 기획됐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대표작으로, ‘세비야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와 함께 ‘이탈리아 3대 희극 오페라’로 손꼽힌다. 경쾌한 서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우러진 두 막의 로맨틱 코미디로,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애창한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무대는 18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지주의 딸 아다나를 짝사랑하는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가 떠돌이 약장수 돌카마라에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묘약’을 건네받으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린다.

이번 공연의 총연출은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최철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지휘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극장 카펠마이스터(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독일 음악협회로부터 ‘미래의 거장(Maestro von Morgen)’으로 선정된 송안훈이 사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사랑의 묘약’ 공연은 전석 2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겠습니다”

ACC ‘나는 광주에 없었다’ 리뷰

관람객, 시민군이 돼 극에 참여  
민주주의 만든 역사적 시간 공감

1980년 5월 어떻게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설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시절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항상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답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작품이었다. 45년 전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시민이 되어, 투사회보를 받아 읽고 전파하며,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계엄령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행진하던 관객에게 80년 5월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15~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에서 열렸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5·18 40주년을 기념해 2020년 만들어진 관객참여형 연극으로 올해는 ACC 10주년 기념 레퍼토리로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공연마다 달라진 공간을 선보이는 예술극장1은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맞아 또다른 무대로 꾸며졌다. 가운데 무대를 둘러싸고 관람석이 경계없이 둘러싸인 형태였고, 관객이 극에 참여하는 만큼 무대와 관람석의 구분이 없었다. 무대와 가까운 쪽은 뒤집어진 우유상자(극중 바리케이드로도 사용된다)에 앉을 수 있었다.

80년 5·18 열흘간의 항쟁을 보여주는 연극이지만 내내 무거운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계엄군이 얼마나 평화로운 광주를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흥겨운 분위기가 극 초반 연출됐다. 강강술래를 하는 장면부터 관객들은 이미 극에 참여하

기 시작했다. 스크린에서 열흘간의 항쟁이 시간대별로 흘렀고 광주시민이 총을 갖게 된 배경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다. 시민군(관객 참여)이 계엄군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독재자는 물러가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광주만 세”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금남로 행진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다. “에이 사 에이사”를 외치며 다같이 무대에 모여 어깨동무를 한 모습에선 80년 광주시민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그대로 재현됐다.

관객참여형 연극이라 낯설어할 수도 있지만 전혀 걱정할 건 없었다. 시민군이 된 관객은 강강술래를 하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어울렸다. 계엄군과 맞서야 하는 등의 장면에서는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내에 따라 뒤로 물러나 다시 무대에 집중하면 됐다.

집작은 했지만 이 작품은 눈물을 흘릴 무언가가 필요했다. 특히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쟁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모습은, 보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각오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너희는 좋은 세상 살아가라”는 말에서 울컥해지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극의 시작 오빠를 기다리던 여동생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했다. 여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2025년 더이상 오빠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가슴 한켠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야외마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출연자와 관람객 모두가 초를 밝히며 행진한 뒤 하나 돼 빙빙 돌았다. 배우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극장의 문이 닫히면서 80년 5월로 떠났던 짧지만 길었던 시간여행이 끝났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80년 5월을 직접 체험하며 5·18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나는 광주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최진화 기자



관객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15~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에서 열렸다.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